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2013년 9월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십니다>
조관훈 (빈첸시오, 대곡성당) _ 사진설명 6면

† 오늘의 전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루카 18,9-14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무죄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 대신 용서를 청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1독서 집회 35,15L-17,20-22L **제2독서** 2티모 4,6-8,16-18 **복음** 루카 18,9-14

입당송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화답송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응찬 요한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철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고, 나는 영희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어.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은 과연 남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세리처럼 남과 비교할 것도 없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의로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판단하실까요? 하느님께서는 '너

는 철수보다 기도를 적게 했구나, 너는 영희보다 착한 일을 적게 했구나.'와 같이 누구와 비교되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오만한 나 자신의 행위와 생각들만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죄인임을 받아들일 때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게 되며,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겸손한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실 것입니다. 최민순 신부님께서 지은 <두메꽃>이라는 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외팔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 산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 숨어서 피고 싶어라 ▶▶▶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느님께 드리는 말씀을 가톨릭교회교리서는 크게 다섯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셋을 맞추어 보세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 27

가톨릭교회 교리서



신앙의 해가 이제 폐막을 한 달 남짓 남겨 두고 있는 지금, 그동안 대구주보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의회 가장 소중한 결실 중 하나인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교리서는 …… 교회 생활 전체의 쇄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 이 교리서가 신앙 교육을 위한 확고한 규범이며 교회의 친교를 위해 유효하고 권위 있는 도구임을 확인합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신앙의 문’ 11항)

‘신앙의 문’을 통해서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신앙의 해 동안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과 더불어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교리서는 1985년 소집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임시총회에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 “모든 가톨릭 교리를 망라하고 지역 교리서의 확실한 준거가 되는 교리서”를 마련할 것을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이 제안에 따라 교리서를 마련하시어 공의회 개막 30주년을 맞은 1992년 10월 11일 교황령 ‘신앙의 유산’으로 반포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가 1993년부터 한국어판으로 번역, 1994년에 총 4권으로 나눠 발행했고, 2003년에 개정판 합본 초판을 간행했습니다. 이후 새로이 번역된 성경에 바탕을 두고 4권으로 나누어져 있

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개정판 제2판을 2008년에 발행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펴낸 신앙의 해 공지에 의하면,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새것”과 ‘옛것’을 모두

담고 있는데, 이는 “신앙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며 또 언제나 새로운 빛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우면서도 본질적인 것을 모두 담아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전체 내용을 “한편으로는 교리 교육의 전통적인 ‘옛’순서를 이어받아 ‘신경’, ‘전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네 부분”으로 나누고 동시에 “우리 시대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그 내용을 자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리서에서는 교회가 이천년의 역사 동안 받아들이고 지키고 제공했던 가르침의 풍요로움이 흘러나옵니다. 성경에서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또 수세기에 걸쳐 나타난 신학자들과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교리서는 교회가 신앙에 관하여 성찰하고 교의를 발전시켜 온 수많은 방법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여,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서 확신을 갖도록 해 줍니다.”(‘신앙의 문’ 11항) **▶▶▶**



“교회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변하지 않는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그 표현에서 새로운 찬미, (), (), (), 찬양의 기도 등이 생겨나게 하심으로써 교회에게 기도 생활도 가르치신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644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포콜라레(마리아 사업회)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 21)

문화홍보실

가톨릭 교회의 영성운동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서로간의 사랑 안에 일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포콜라레 운동’(마리아 사업회)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평신도 끼아라 루빅(Chiara Luich, 1920~2008) 여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포콜라레’는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를 뜻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널리 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로마에 총본부를 두고 있는 포콜라레는 ‘마리아 사업회’라는 공식 이름과 함께 1962년 교황청으로부터 인준을 받았으며, 급속히 발전하여 지금은 전 세계 187개 나라에 이 정신이 전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9년에 첫 포콜라레 본부가 세워졌고, 현재 전국적으로 7개의 본부와 1개의 회원 양성을 위한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약 2만 5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대교구에서는 1980년 4월 당시 교구장이셨던 이문희 대주교님의 요청으로 대구대명동에 첫 여자 포콜라레 본부를 열었으며 1993년 3월에는 남자 포콜라레 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대구대교구에서는 약 1,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실시되는 월 1~2회의 소그룹 모임과 연례모임, 피정 등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에는 남녀노소, 사회 신분

과 성소,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 개최되는 ‘하루 마리아 폴리’나 여름철 3박 4일 일정으로 열리는 ‘여름 마리아 폴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월모임인 생활말씀 모임에 참가하면서 포콜라레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소규모의 남녀공동체(포콜라레)를 이루고 생활하며 포콜라레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포콜라리니(Focolarini)라 하며, 포콜라레 운동의 유아, 청소년,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젠(Gen)은 새 세대(New Generation)의 약어로, 복음적 메시지를 생활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의 영성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친교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일치시키는데 봉사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복음 정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새 가정 운동, 일치를 위한 정치인 운동,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운동, 종교 간 대화 등으로 사랑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포콜라레 운동은 오늘날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세계에 꼭 필요한 평신도 사도직의 좋은 모범입니다. **▶▶▶**

포콜라레 대구본부

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13(시지동)
(053)523-4822

여) 대구광역시 남구 큰골길 27(대명동)
(053)651-2739

홈페이지 : <http://www.focolare.or.kr>



노(老) 수사님의 겸손

말썽 많고 다투기 잘 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에 나이 많은 로렌스 수사님이 새로운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로렌스 수사님이 부임하던 날,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젊은 수사님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사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노 수사님께서 오셨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새로 오는 수사님들은 대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인 모양이었습니다. 노 수사님은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접시를 닦는 동안 멸시하고 천대받는 등 구박이 대단했습니다. 로렌스 수사님이 이곳에 온 지 석 달이 지나자 장상 수사님이 감독 차 방문을 했습니다. 젊은 수사님들은 장상 수사님 앞에서 찢찢 매었습니다. 장상 수사님은 아무리 찾아도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에 가셨는가?”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사님을 3개월 전에 임명해서 여기로 보냈는데?”

장상 수사님의 말에 젊은 수사님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노 수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원장의 권위로 수사들을 복종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로렌스 수사님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 수도원에 말썽이 많고 다투기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아무도 참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자기를 낮추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골로**

금주의 성인



성 시몬(10월 28일)

열두 사도 중의 한 분으로 열혈당원(마르 3,18)이라 불리는 시몬 성인께서는 가나안 출신으로(마태 10,4) 야고보와 유다 사도 및 요셉의 형제(마태 13,55 ; 마르 6,3)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무력을 통해 민족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당의 일원이셨으나 사도가 되신 후에는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셨다. 전설에 따르면 성인께서는 유다 타대오 성인과 함께 페르

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이 나는 형벌을 당하고 순교하셨다고 전해진다.



■ 북경한인성당 20주년 기념행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18일(금)부터 24일(목)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북경한인성당(동교민항 본당)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출국하셨다. 대주교님께서는 북경한인성당 본당의 날을 맞아 교중미사를 봉헌하시고 49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말씀과 기도로 열어나가는 한 해! 교구민들을 위한 **신앙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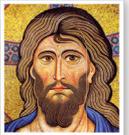


2014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대건인쇄출판사에서는 교구 문화홍보실과 공동으로 2014년도 신앙 다이어리를 제작합니다. 본당 공동체 및 기관·단체 활동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례와 말씀에 집중하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내용구성** : 교구 소개/교구 내 성지 안내/대리구 소개/본당찾기/연간계획/월간계획/일일 계획/각 월별 전례력/오늘의 말씀사탕/주일 전례 및 복음 말씀/성경읽기 표/미사통상문/주요기도문/대세 주는 법/교리상식/성인축일표/교구 내 전화번호
- **선주문 예약** : 판매가 10,000원 (예약기간 내 선주문 시 9,000원)
- **예약기간 및 문의** : 2013년 9월 30일~10월 30일 |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6~9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9월 당선작**



2012
2013

- **최우수상** :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십니다> 조관훈(빈첸시오, 대곡성당)
어두운 밤, 지친 삶을 짊어지고 돌아가던 길에 멀리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자석처럼 끌려 다가간 곳, 그곳에서는 그분께서 빛나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취주시리라"(에페5,14) 하신 말씀처럼 빛이 되어 오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성산면 박곡공소)
- **우수상** : <사랑 그리고 찬양> 김민수(바오로, 성서성당)
- **장려상** : <나는 너를 사랑한다> 홍현숙(스페란자, 동천성당)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27주일(10월 6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② 정답은 <양심>입니다.

당첨자 : 최임선(클로틸다, 건천), 유명남(세실리아, 성동), 양기홍(루도비코, 형곡)

김인주(에디타, 고령), 강신국(가브리엘, 선산)

성당엔 열심히 다니면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미사	10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10월 30일(수) 19:30 김천황금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10월 31일(목) 19:00 성모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 미사	10월 28일(월) 11:00 수성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1월 2일(토) 9:50 프란치스카눔

성소 | 피정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10(일) 14:00, 본원
문의: 김 라우렌시아 수녀,
(010)5449-3166

107차 대구 선택 주말

기간: 11.15(금)~17(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미혼 남녀 신자, 예비자
마감: 선착순 50명
문의: 황 임마누엘라, (010)2958-5215
<http://cafe.daum.net/daeguchoice>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일일 대피정

일시: 10.28(월) 10:00~17:00
장소: 가톨릭교육원 대강당
강사: 예수회 정제천(요한) 신부
문의: (010)5493-1819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1.9(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성모님과 죽음의 신비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오씨에(Oh! see-jesus) 젊은이 피정

일시: 11.10(일) 10:00~18:00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남성

장소: 그리스도의교육 수녀회
바틀로 교육센터(회비: 1만 원)
문의: (010)5517-8833

작은예수회 창립 29주년 송년감사제

일시: 11.1(금) 11:00~16:30
장소: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마을
강론: 박성구 신부 / 지역별 출발
문의: (02)777-6444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교육 |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

11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1.5(화) / 월 3만 원
저녁: 창세기, 사도행전(화, 목 19:00)
낮반: 창세기, 마태오(화, 금 10:00)
문의: 253-1313 / (010)2578-5535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 사이버상담
상담전화: 253-1405~6

앗숨 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 19:30~21:00
대상: 18~35세 미혼여성
(저녁식사, 성경기도, 나눔)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2649-2045

성경 통독 특독 데이

일시: 매주 화요일 19:3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대상: 20~40세(남, 여)
과목: 불어반, 중국어반, 한국어반
문의: 622-4346

기분좋은 대화, 행복한 삶 워크샵

기간: 11.7~29(매주 목, 금) 각 4회
대상: 일반 대상 / 비용: 10만 원
지도: 황광우(요셉) 신부
문의: 폰벤투알 수도회,
(070)4266-0047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2014년 3월 입주, 총264세대,
1,000병상 인천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일 미사,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
문의: (032)569-8500
<http://www.marisstella.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런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산나 010-6571-3385
리스투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파비올라)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플스파랜드 3층

소변에 거품이 나십니까?
수 내과
[부설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파라엘)
상인역 ☎(053)642-7575

시브마린리조트
170명 연회장(대, 중, 소 연회장 완비)
객실 68개 취사, 목욕구조(초, 중, 고 수련회 환영)
해수사우나, 노래방, 스크린골프,
한, 일식당, 커피숍, 편의점 완비
www.submarineresort.co.kr
예약문의 054)293-1200 나중기(요아킴)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1

나가사키성지순례
항 공(스타플라이어) - 확정
11월 18일~21일(3박4일)
순례경비 85만원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조필래(유스티노)

최후 · 관절 및 뇌 · 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요통, 좌골신경통, 목 ·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국가등록특례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엘마) 박요안나
상인역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위령의 날 미사

- 11.2(토) 10:00 교구 성직자 묘지 (집전 : 교구 총대리 이용길 신부님)
- 11.2(토) 11:00 군위 묘원 미사 및 봉안담 축복식 (집전 : 조환길 대주교님)
- 11.2(토) 11:00 범물동 묘원 (집전 : 교구 사목국장 박영일 신부님)

행사 | 모임

2014학년도

베드로관(소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 공동체 생활, 학업은 무학 고등학교 재학 (경북 하양 소재)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베드로관, 854-2085
교구 성소담당, 250-3071

성요셉요양병원 축성식

성요셉요양병원(원장:장효원 요셉 신부) 축성식을 이용길(요한) 총대리 신부님을 모시고 하기와 같이 거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10.30(수) 11:00
장소: 성요셉요양병원 2층(재활치료실)

해외원조 「사랑의 선물보따리」

각 본당에 설치된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파란색 현옷수거함에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어려운 이웃

을 위해 유치원·장애학교 지원 등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555-4846 / 253-9991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이 되어 주세요! 제3회 7080 밥 콘서트(입장료: 1만 원)

일시: 10.27(일) 금일 오후 4시
장소: 아양아트센터(구. 동구 문화체육회관)
후원: 교구 청년국,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문의: (010)5756-7676 / (010)9577-7819
수익금은 결식아동돕기에 쓰여집니다

가톨릭 사진가회 가을 사진 전시회

기간: 11.1(금)~5(화)
장소: 성모당 성직자묘지 앞 한옥

제39회 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주제: 빛)

기간: 11.5(화)~10(월)
장소: 봉산문화회관 1전시실

김수환 추기경님 추모 음악회(레퀴엠미사곡)

일시: 11.2(토) 19:00
장소: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오케스트라, 합창단 200명, 베르디레퀴엠
후원: 대구평화방송(주보지참시할인)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254-7241

전례꽃꽂이 강좌반 무료 전시회

기간: 11.13(수)~15(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전례꽃꽂이연구회 강좌반 모임
기간: 10.21(월)~11.30(토)
문의: (010)3546-8339

교육 | 모임

2014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1.4(월)~8(금) 9:00~16:30
자격: 07.1.1~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방법: 컴퓨터 추첨,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채용 | 안내

남산동 신학교 관리직원 채용

근무조건: 주5일
문의: (주)현대 TMS, 559-6661
(010)6515-3500

수지의집 상담원, 취사원 모집

사회복지사, 운전, 주3회 당직가능
문의: 759-3122(sy0734@nate.com)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혜영(리디아), 김태식(요셉)
Lemuel Graham

위령의 날 버스운행(군위묘원) 안내

일시: 11.2(토) 9:00 (시간 엄수)
출발: 교구청 내 대건출판사앞 주차장
운임료: 왕복 1인당 1만 원(선착순)
예매기간: 10.28(월)~11.1(금)
준비물: 미사도구, 따뜻한 옷, 돗자리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전화예매불가)

당일 현장에서 국밥 판매합니다
미사 장소: 제2군위 성직자묘지 (성직자묘지 및 봉안담 축성)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프란치스코) 송선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www.misoindental.com 마산진료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애플비노기과
www.appleuro.com
비노기과 원장 강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스마트폰 전문점
두루텔레콤 SKT, KT, LGT
▷ 인기 기종 : 삼성 갤럭시(노트2, 갤럭시)
공동구매 최저가 판매
053-653-5011 내당역 3번 출구
011-444-1800 장현순(엘리사)

강남피아노 종합악기할인점
중고피아노 고가 매일
조율, 운반, 수리, 매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갑봉 스페리노 (교우님 우대)

원용하는 SM **수맥흙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